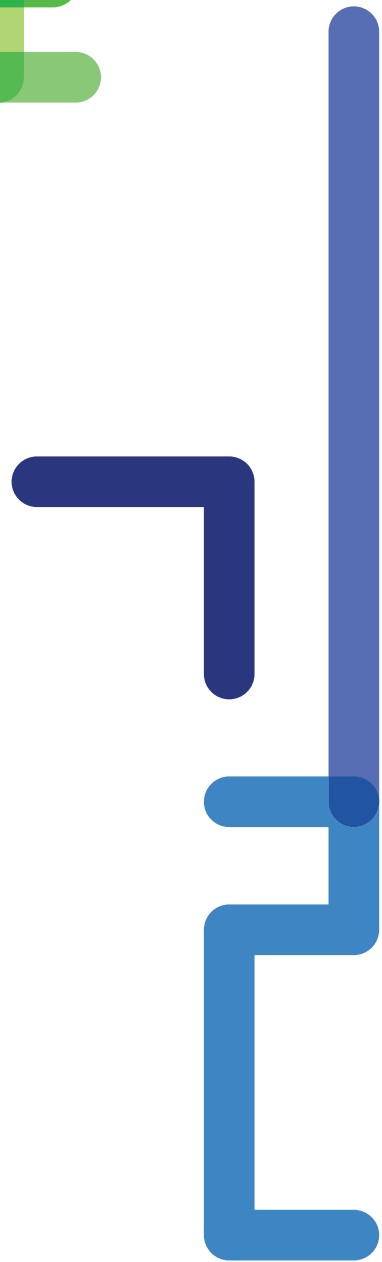


아무도 가치 않은 사람

2017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The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7



CONTENTS

- 01 인사말
- 02 비전·미션
- 04 함께하는 사람들

Part 1 — 이루다

- 07 성과
- 08 활동
- 10 결산
- 12 인터뷰 - 임윤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 17 시칼럼 - 정호승 시인

Part 2 — 채우다

- 19 모금활동
- 20 인터뷰 - 푸르메재단 모금팀
- 23 인터뷰 - 오홍원 기부자

Part 3 — 나누다

- 25 **의료사업**
- 26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27 푸르메재활의원
- 28 푸르메치과의원
- 29 인터뷰 - 정희경 푸르메치과의원 팀장
- 30 서울시 종로아이존
- 31 **자립사업**
- 32 행복한베이커리&카페
- 33 인터뷰 - 김윤우 바리스타, 이혜정 어머니
- 34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 35 과천시장애인복지관
- 36 종로장애인복지관
- 37 **배분사업**
- 38 의료·재활
- 39 인터뷰 - 김소정 어린이, 김미진 어머니
- 40 사회적응·자립
- 41 가족·교육·문화
- 42 편지 - 정다연 어린이 아버지
- 43 **사회통합사업**
- 44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 45 인터뷰 - 황혜진 마포구 주민
- 46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 47 **출판사업**
- 48 푸르메재단 기획도서

Part 4 — 꿈꾸다

- 51 인터뷰 -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COVER STORY

시민의 기부로 지어진
어린이재활병원에 이어
장애청년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푸르메재단은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지원

밤새 소복이 쌓인 눈발에 첫 발자국을 찍듯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막막하고 힘에 부치는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선한 시민과 착한 기업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었으니까요.

저희 푸르메 일꾼들은 그 온기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세웠습니다. 보통 병원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정성껏 치료하는 헌신적인 병원, 로봇으로 보행치료를 돕는 최첨단 병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너른 품의 병원입니다. 어느덧 개원 3년차를 맞이한 우리 병원은 매일 300명의 장애어린이를 치료하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나눔의 힘이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이 올봄부터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설립 이래 한국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줄곧 이끌어온 상징적인 복지관입니다. 재단이 보유한 재활 의료의 전문성과 NGO다운 활력이 어우러지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청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온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재활의 목적은 자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재활을 마치고도 자립이 어려워 부모가 평생 돌봐야 하는 그 절박한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복한베이커리&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어엿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장애청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일하며 홀로서기를 꿈꾸는 스마트팜, 나아가 문화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공동체도 짓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낯선 길이지만 누군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한국 비영리 부문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왔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기부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나눔 운동을 펼치면서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의료적 재활을 넘어 사회적 자립으로 지원의 영역을 넓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비전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

미션

장애인 전인재활 및 사회통합

재활의 선도, 존중과 통합, 미래가치 창출

나눔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나눔과 참여, 투명과 윤리

주요사업

의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배분

장애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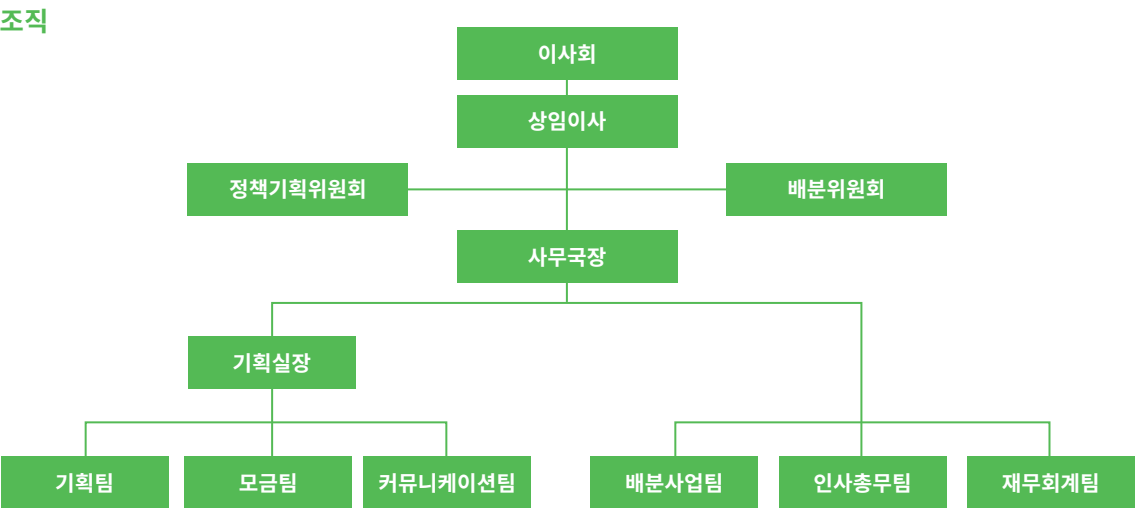
사회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출판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재단을 이끌어 갑니다.

명예이사장	이사장	공동대표	
 김성수 우리마을 총장	 강지원 변호사	 이정식 서울문화사 총괄사장	 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사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	 원택 스님 부산 고심정사 주지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문창진 CHA의과대학교 보건복지행정학과 교수
--	--	---	--	---	---

감사

 김윤태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부원장	 조인숙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송재용 푸르메재단 대외사업 담당 이사	 김문규 태율회계법인 이사	 김선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	---	---	--	--

홍보대사
재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합니다.

 엄홍길 산악인	 선 가수	 이지선 작가 / 교수
 서경덕 홍보전문가	 이근호 축구선수	 이은미 가수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박태균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용숙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덕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동건 | MBC 시사제작국장
정재권 | 한겨레 선임기자
최영준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분위원회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살핍니다.

강용원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센터장
곽재복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경미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윤태 |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부원장
김종배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희정 |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차장
박대운 |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
서경주 |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前고문
석도준 | 웰플란트치과 원장
송재용 | 푸르메재단 대외사업 담당 이사
우창윤 | 서울시의회 시의원
이규범 |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이금호 | 스마일재단 이사
이명목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상진 |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이학준 |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
조명민 | 장애인 부모
한수정 | 푸르메재활센터 센터장

PART

1

이루다

성과

모금

4,729,965,088원

개인·기업 기부



의료사업

218,762명

장애어린이에게 통합형 재활의료 서비스,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치과치료 제공



배분사업

4,866명

장애인에게 의료·재활, 사회적응·자립,
가족·교육·문화 서비스 지원



출판사업

4회

장애인식개선도서 출간



자립사업

286,188명

장애인에게 직업·가족·치료·교육·
지역연계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사업

101,377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체육·독서활동 기회 제공



1 2.23

배우 다니엘 헤니,
어린이재활병원
기금 기부

2 6.14

방송인 줄리안 쿼타르트,
자전거 국토종주
자선 라이딩 기부

3 8.27

축구선수 이근호,
고객기부자모임
더미라클스 가입

4 4.3

가수 선,
생애 첫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념 기부

5 3.7

프로골퍼 장하나,
고객기부자모임
더미라클스 가입

6 5.12

장애인 치과치료
봉사단 푸르메
미소원정대 활동

7 12.15

현대모비스 임직원,
장애어린이 가정에
생필품 선물

8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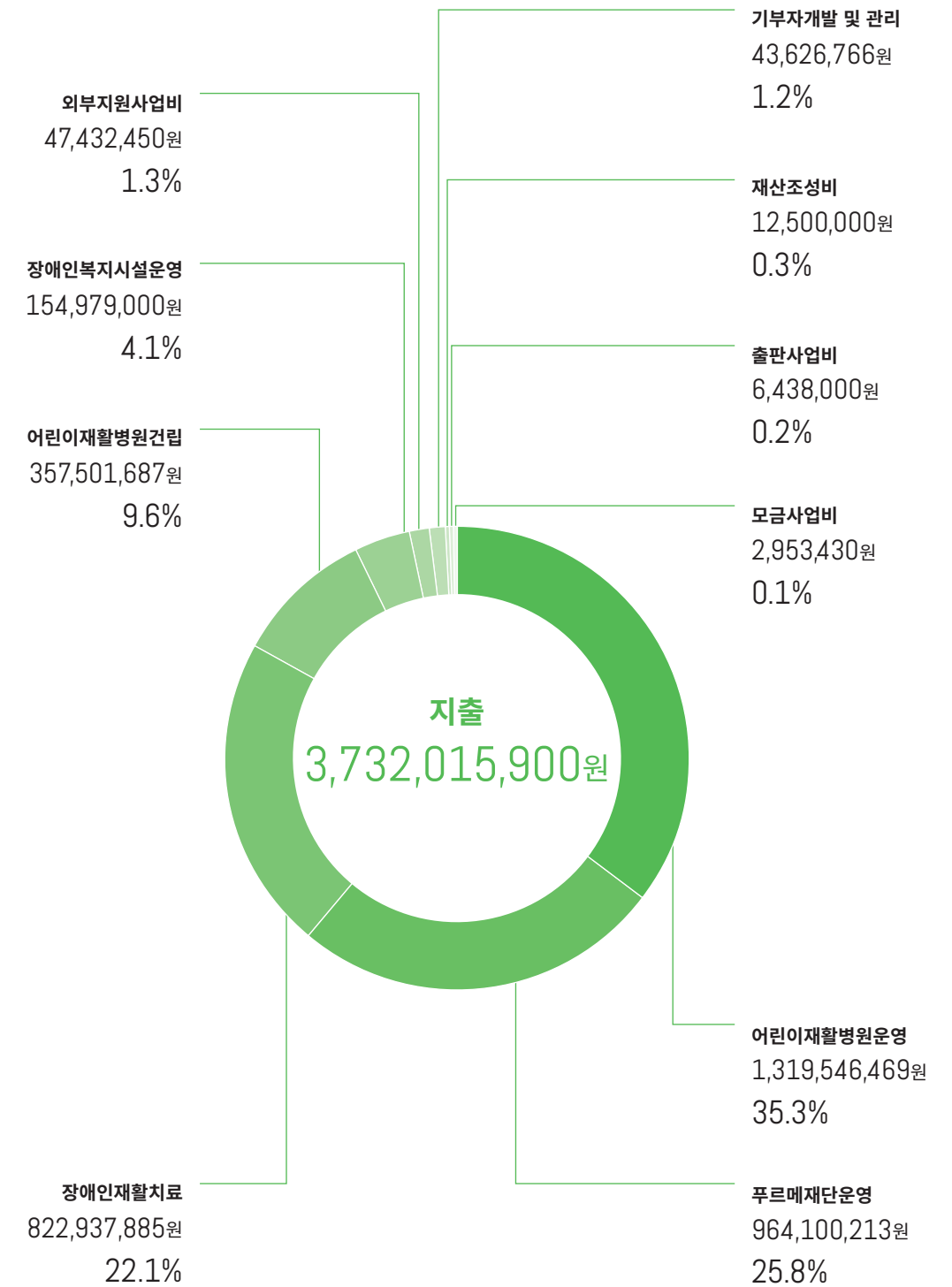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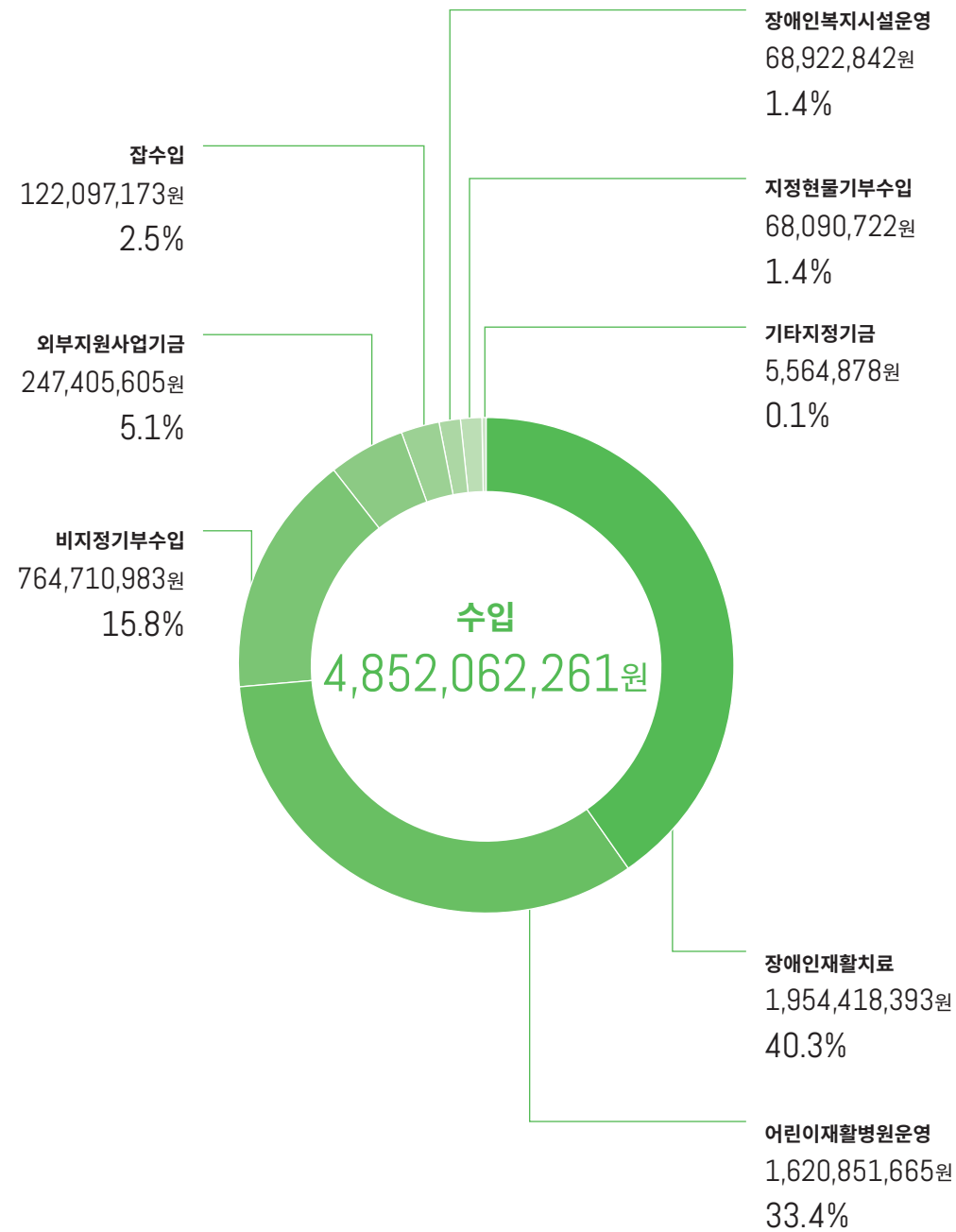
장애어린이
지원사업
배분심사

9 10.28

기부자모임
한걸음의 사랑
2주년 기념 걷기

결산

푸르메재단은 외부 회계법인, 보건복지부, 국세청을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윤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장애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정태영 기획실장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푸르메재단 DB



우리 병원이 개원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은 어떤 의미의 해였습니까?

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진료·치료서비스 제공 환경과 과정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강화함으로써 최고의 어린이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인된 병원의 진료·치료서비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전 직원이 3월부터 12월까지 진료·치료의 과정, 감염, 위생, 안전, 소방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여 인증평가원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3월에 개원함으로써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재활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결실은 병원의 모든 직원이 장애어린이와 가족을 생각하면서 병원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가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최고의 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2018년은 진료와 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병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병원은 통합재활의료서비스(comprehensive and holistic)를 통해 어린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가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최고의 어린이재활병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의 주 연령대는 3~4세입니다. 우리 병원의 목표는 어린이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이후에 더 많은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가 온전히 성장하려면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 사회적 발달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종합적인 진료와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린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면 어린이가 커갈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걷지 못하던 아이가 혼자 걷게 된다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화장실을 갈



어린이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임윤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제대로 치료하면 성장기를 거치면서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린이 재활치료는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교육, 체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20년 뒤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비장애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어린이들에게도 멀리 내다보는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7년의 가장 큰 성과는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으로서 한국형 어린이재활프로그램 모델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별성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장애어린이의 성장 과정에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병원, 어린이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재활병원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와 가족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료장비와 치료실 등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강점을 꼽는다면 당연히

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진료·치료 인력이 유기적인 협진·협력 체계를 통해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어린이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 병원에는 패밀리컨퍼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치료하는 주치의와 물리, 작업, 언어 등 각 영역의 치료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와 사회복지사까지 참여해서 부모에게 아이의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패밀리컨퍼런스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의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병원 의료진들은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 2~3회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각 영역이 케이스컨퍼런스를 통해 어린이의 재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협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은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진심과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병원의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어울려 지냈습니까?

지난해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병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몇몇 언론에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장애인스포츠크터, 직업재활센터, 어린이 도서관까지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전시회나 공연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지역주민을 초청해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역주민들이 장애어린이와 가족을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병원을 찾는 장애어린이와 가족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던지던 주민들이 이제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병원의 치료대기자 문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진료·치료 대기자가 1,260명이나

됩니다. 물론 대기자 중에는 다른 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치료를 받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이야 얼마나 절박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병원도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회적인 해법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애어린이가 제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의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치료기관의 확대와 건강보험수가의 개선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치료받을 곳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오랫동안 대기하는 어린이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어린이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재활 치료를 받느라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기부로 건립한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통합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사회제도적으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탓에 민간의료계에서는 어린이재활치료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재활치료를 지금보다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의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어린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재활이 선행되지 못해 국가의 교육체계에 접근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어릴 때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성인기 이후에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장애어린이의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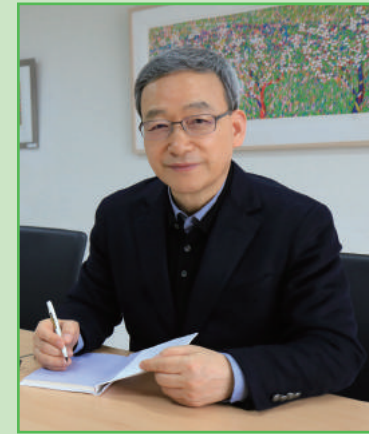
우리 병원의 2018년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진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의 교육과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장애어린이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병원으로 기부자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병원이 건립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자님의 한결같은 관심과 나눔 덕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병원 직원 모두가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진료와 치료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기부자님의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병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장애어린이와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칼럼 정호승 시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춧볼도 꺼져가는 어둔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정호승님은 장애청소년 백두산 등반, 장애어린이 부모 대상 시 강연회, 어린이재활병원 개관 기념 작가초대전 등으로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10여 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한눈팔지 않고 뜻있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생명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사랑과 함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희망 없는 희망’에 절망해왔습니다. 푸르메재단은 그런 저에게 ‘희망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우리 사회의 장애어린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바로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PART

2

채우다

모금활동

13,334명 시민과 167개 기업의 나눔으로 장애인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장애인 치료와 가정 지원을 위한 배분사업 기금이 42%로 가장 많았고, 의료 지원을 위한 재활치료사업
기금이 39%, 재단 운영을 위한 푸르메홀씨 기금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사업 기금,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출판 기금을 포함한 기타 기금, 현물 기부는 각각 1%를 차지했습니다.

배분사업
기금

1,977,573,998원

재활치료사업
기금

1,820,821,665원

푸르메홀씨
기금

764,740,983원

지역사회재활사업
기금

68,122,842원

기타 기금

30,614,878원

현물 기부

68,090,722원

모금

4,729,965,088원



‘2017 아디다스 MBC+ 마이런서울’에서 완주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선 홍보대사



백해림 팀장
고액모금 담당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

최지원 간사
기부자 예우 서비스 담당

꼭 필요한 곳에



복보영 간사
모금 캠페인 담당

제대로 사용해야죠!

모금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백 — 저희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일을 해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해서 기부자님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는 모금업무 전반과 고액모금을 맡고 있어요.

최 — 저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내하고 기부 신청을 돕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기부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과 요청사항을 처리해요. 기부자님들과 소통하는 게 주요 업무죠.

복 — 저는 기부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와 뜻을 함께할 분들을 모집하는 일이죠.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고민해요.

지난해 주목할 만한 활동이 있다면?

백 — ‘채리티 러너’요. 아디다스가 매년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에 신설된 기부 이벤트예요. 모금활동을 벌이는 건 아니고 참가비 자체가 기부되는 거예요. 이런 기부 이벤트가 생기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도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 — 동감이에요. 특별한 날 기부를 독려하는 ‘미라클데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상을 떠난 아이의 보험금, 아버지의 장례식 조의금을 기부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최 — 기부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매달 함께 걷고 걷은 거리 1m당 1원을 적립해 기부하는 모임 ‘한걸음의 사랑’이 지난해 2주년을 맞았어요. 취미가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 기부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의미 있는 거 같아요.

가장 즐겁고 뿌듯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백 —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한 분들이 종종 어린이재활병원을 둘러보러 오세요. 자신의 기부로 지어진 병원에서 아이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하시죠.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최 — 홍보대사 선 님이 지난해 4월 42.195km를 달리고 1m당 1천 원을 환산해 4,219만5천 원을 기부했어요. 무릎과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애어린이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선 님을 보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복 — 직원들이 기부한 만큼 매칭 기부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천지세무법인이라고. 박점식 회장님과 직원 분들이 재단을 방문해주셨는데 저희한테 고맙단 인사를 하시

는 거예요. 보통은 기관에서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뜻이 있어 기부하시는 임직원 분들에게 감동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백 — 행사가 종종 있는데 기부자님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말에 휴식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어 저희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려요.

최 — 맞아요. 저는 기부자님들과 전화로 많이 만나는데 직접 만나면 너무 재미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어떻게 하면 모든 기부자님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복 —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부자님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항상 기부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일부 모금단체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기부문화가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재단은 어땠나요?

백 — 푸르메재단은 정기기부도, 일시기부도 늘었어요. 재단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기부자님들이예요. 그런데 확실히 신규 기부는 많지 않았어요. 최근 5년 동안 지난해에 신규 기부 증가폭이 가장 낮았어요.

최 — 기부현황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모금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를 중단하시겠다는 기부자님이 계셨어요. 기부를 끊으셨다가 두 달 후 다시 하시긴 했지만 뉴스에서 다른 모금단체의 기부금 유용 사례를 접하시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복 — 모금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기부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부쩍 듣긴 해요. 다른 업계는 A사에 문제가 생기면 경쟁사인 B사의 매출이 올라가곤 하는데 기부 쪽은 안 좋은 영향을 함께 받는 것 같아요. 모든 기부단체가 투명 경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명경영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재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백 —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지출 현황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기부자님들께 연차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든걸 보여드리는 게 모금에도, 나눔 문화 확산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최 — 맞아요. 기부자님들께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참



시민·기업의 힘을 모아 희망을 만들어가는 푸르메재단 모금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부자님들께 기부경로를 여쭙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을 보시고 기부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기부하시기 전에 믿을만한 곳인지를 직접 찾아보시더라고요.

북 — 소통도 중요한 걸 느껴요. 잘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더니 통하더라고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기부해 주셨던 분들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후에도 계속 기부를 해주실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부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올해 목표가 있다면?

백 — 요즘은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화두는 투명성인 것 같아요. 지금껏 그래왔듯 기부자님들께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안내드리고 기부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최 — 얼마 전 팀 워크숍 때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재단의 가치를 전달하고,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즐거워야 한다고. 저는 기부

자님들과의 통화가 주요 업무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게 목표예요.

북 —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치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 간사님이 지칠 때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늘 함께해주시는 기부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백 — 지난해 일부 모금단체의 부정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푸르메재단을 믿고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최 — 기부자님들이 저희를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간혹 저희를 어렵게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괜찮아요. 기부자모임이나 기부행사에도 부담 없이 참여해주세요.

북 — 방문해주셔도 되고. 푸르메재단이 위치가 참 좋아요. 서촌에 있거든요. 오며가며 들려주세요. 그냥 놀러오세요. *

인터뷰 오홍원 기부자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

“마침 어머니 기일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뜻깊네요.”

12월 8일, 오홍원(54)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째 되는 날을 특별하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생전의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베푼 사랑을 나눔으로 되새기는 것. 얼굴에서는 상실감과 그리움 대신 평화로운 기운이 읽힙니다.



글·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나눔으로 추모하다

외국계 은행에서 30여 년째 재무관리자로 일하는 오홍원 씨. 2011년, 친정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젊어서부터 홀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제 나이 때 편찮으시기 시작했어요. 병세가 깊어진 5년 동안 거의 누워만 계셨는데 힘들게 사셔서 병이 나신 게 아니었는지... 생각할수록 안쓰럽고 찡해요.” 남들처럼 때 되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두 살 터울 오빠가 어머니 투병하시는 내내 곁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제사도 챙겨야 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빠의 부담을 덜어 주려 번갈아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진정으로 추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제안했습니다.

가슴에 되새긴 어머니의 흔적

오홍원 씨는 기부가,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도리’로 뿌리 깊게 인식돼 온 제사에 대한 짐을 덜어내는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제사의 목적이 추모인데 형식을 강요하는 건 비합리적이지요. 저부터 실천하자 해서 친정 쪽 제사를 없앴죠.” 기부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투명성이었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곳은 더 투명해야 기부금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색을 띄지 않

면서 조직과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단체를 알음알음 찾다가 매일 출퇴근길에 지나치던 푸르메재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아프셨던 어머니를 봐왔던 터라 장애어린이를 돕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매달 정기기부는 물론 매년 기일에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관심을 틔우다

오홍원 씨는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면서 주변에 대한 관심이 싹텃었습니다. “은퇴할 나이도 되고 애들도 다 커서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 아픈 이들에게 관심이 가요. 장애어린이를 잘 품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평생 재활해야 하는 장애어린이에게서 휠체어를 타느라 불편함을 겪었던 생전의 어머니의 모습이 겹칩니다. “장애어린이 가족을 애처롭게 보지 말고 장애 인식을 바꾸고 시설 투자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홍원 씨에게 나눔은, 빠듯한 생활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뭐라도 쥐어주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방안은 나눔이에요. 하면 할수록 위로도 되고 중독성도 있어요.” 어머니는 가졌지만 그 자취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리는 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PART

3

나누다

의료사업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료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제때 치료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치료의 기회를 선물했고,
장애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치과치료를 실시했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85,208명

푸르메재활의원
23,951명

푸르메치과의원
3,535명

서울시 종로아이존
6,068명

치료

218,762명



푸르메재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현우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어린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장애어린이에게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의 긴밀한 협진으로 통합형 재활의료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병동·낮병동을 확대했고, 치과·소아청소년과는 진료 대상을 비장애어린이와 성인으로 늘렸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활의학과
158,294명
정신건강의학과
14,003명
소아청소년과
7,471명
치과
5,440명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지우

푸르메재활의원

장애어린이가 꼭 필요한 물리·작업·언어·인지·미술·음악치료 등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장점을 살린 낮병동 운영을 확대했고, 종로장애인복지관·서울시 종로아이존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물리치료
8,678명
작업치료
8,338명
언어치료
2,765명
감각치료
2,029명
음악치료
1,065명
미술치료
1,076명



장애인의 구강 검진을 하고 있는 푸르메치과의원 전현아 원장

푸르메치과의원

장애인의 구강 건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기본진료, 임플란트, 고정성보철, 가철성보철 등의 치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구강질환을 방치하지 않도록 치료비를 지원했고, 푸르메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나 지역주민에게도 알맞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기본진료	2,691명
임플란트	116명
고정성보철	710명
가철성보철	18명

인터뷰 정희경 푸르메치과의원 팀장

장애인 치과 ‘10년의 기적’

진료의자 두 개를 놓고 자원봉사자 11명과 진료를 시작한 푸르메치과의원. 지난 10년 동안 기업·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장애인 9천여 명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의 든든한 구강건강 지킴이가 되어준 사람, 정희경(52) 푸르메치과의원 팀장을 만났습니다.

글·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

정희경 팀장은 푸르메치과의원 개원 초 유일한 치위생사로 시작해 지금은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와 “여전히 계셔서 좋다”고 인사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환자 등록번호가 네 자리를 넘어섰는데, 두 자리 번호로 등록된 초창기 환자 분들도 다니세요. 제가 환자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 마음이 놓이시나 봐요.” 장애인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들이 더해졌습니다. 몇몇 의료진은 휴진하면서 수년째 봉사하고, 기업은 진료의자·파노라마 등 고가의 장비를 기증하거나 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줍니다. 진료의자 4개를 갖추고 전동휠체어를 고려한 널찍한 공간에서 환자를 맞이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물론 충청·전라·경상·제주까지 전국에서 온 장애인들이 치과의 문을 두드립니다.

환자에게 선물한 새로운 인생

정희경 팀장은 푸르메치과 의원이 가장 잘해온 일로 치료비 지원을 꼽습니다. “치과치료가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가 아프면 위축되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죠.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지원해드리면 고마워하세요. 그 분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이거든요.” 치료비를 지원받은 장애인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앞니가 빠져 씹을 수조차 없던 한 지적장애

인은 고른 치아를 갖게 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환자들에게서 큰 보람과 희열을 얻습니다.” 푸르메치과 의원은 10년간 시민·기업의 후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200명에게 구강질환 치료비 6억여 원 지원, 진료비 24억여 원을 감면했습니다.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의 장애인 4,20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치과

장애인 전용 치과로 출발했지만, 이제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에게도 열려있습니다. 치과 부근에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맹학교·농학교가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소리 지르는 자폐아이를 보고 놀란 비장애아이에겐 ‘네가 치과를 무서워하듯 저 아이도 똑같아’라고 말해주는 한 엄마에게서 정희경 팀장은 희망을 봅니다. 비장애인이 낸 치료비 일부가 장애인 치료비로 지원되고, 혜택받은 장애인은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선순환’을 꿈꿉니다. 생활비를 쪼개 기부하거나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가는 장애인의 모습에 흐뭇해합니다. 정희경 팀장이 그리는 푸르메치과 의원의 미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우리 동네 치과’입니다. 기적을 피워낸 지난 10년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기대됩니다.



학교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꼬마 친구들

서울시 종로아이존

재활치료
6,068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어린이를 전문적·다각적으로 치료했습니다. 발달장애어린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와 학교생활·치료 과정을 공유해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했고, 발달장애어린이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근거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이어나갔습니다.

자립사업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홀로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비장애형제·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행복한베이커리
&카페

12명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10,134명

과천시장애인복지관

206,151명

종로장애인복지관

69,891명

지원

286,188명



김소연 행복한베이커리&카페 바리스타



제4회 행복한베이커리&카페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참여한 장애인 직원들

행복한베이커리 & 카페

직업 지원
12명

장애청년이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일터를 운영했습니다. 종로점, 서초점, 고덕점, 시청점, 상암점에 이어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4회째를 맞은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서울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맛있는 커피를 선보였습니다.

인터뷰
김윤우 바리스타, 이해정 어머니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내오기까지 5분 남짓.

행복한베이커리&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김윤우(31) 씨의 행동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7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제 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뚝 선 김윤우

씨와 어머니 이해정(57) 씨가 함께 그리는

풍경에 들어가 봤습니다.

글·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세상 밖으로 나오다

김윤우 씨는 2012년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종로점을 시작으로 6개 지점을 경험했습니다. 후배 직원들에게 ‘음료 레시피를 제대로 외워라’, ‘손님이 기다리지 않도록 재빨리 만들어라’고 조언하며 계산부터 제조까지 선배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누구보다 당차지만 취업 전에는 힘들고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해정 씨는 “장애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요. 윤우도 집에 꼼짝 않고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밖으로 어떻게 끌어낼지 눈앞이 깜깜했죠.” 그러다 고용복지센터의 바리스타 교육에 흥미를 느낀 김윤우 씨는 3개월 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냅니다. 이해정 씨는 아들이 취업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감사하면서도 윤이 좋아 선택받은 것 같아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미안해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일자리를 갖게 된 김윤우 씨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움츠러들고 두려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의욕이 넘칩니다. 혹여 일이 고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지”라며 안심시킵니다. 김윤우 씨는 월급의 일부를 집안 살림에 보탬니다. 두 살 터울 여동생을 위해 결혼 자금

도 들어주고, 부모님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에 선물도 챙깁니다. “독립된 인간으로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땀 흘려 번 돈으로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으니까요.” 이해정 씨는 행복한베이커리&카페가 아들에게 삶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안겨주었다고 고마워합니다. 김윤우 씨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껴요. 일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요”라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아들이 이끄는 엄마의 꿈

김윤우 씨의 꿈은 카페 사장입니다. “피아노가 있어서 생음악이 흐르고요. 색다른 메뉴도 선보이고 싶어요.” 이해정 씨는 당당히 꿈을 키워가는 아들 덕분에 ‘보호자 역할’에서는 벗어났지만,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절실해요. 장애인만 따로 모아놓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로 일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사회가 함께 책임져야죠.” 장애자녀 부모의 소원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김윤우 씨처럼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장애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있는 장애인들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이 직업 능력을 개발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잠재된 예술 재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 임가공 생산에서 벗어나 디자인 작업을 활용한 아트상품 브랜드 '아텐토(ART'NTTO)'를 출시했습니다. 전시회·핸드메이드페어·온라인쇼핑몰에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해 매출을 올렸고 장애 인식도 개선했습니다.

직업 지원
8,022명

교육 지원
2,112명



파티플래너 양성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업훈련, 가족복지, 권익옹호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파티플래너 양성,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벽 없는 마을 조성, 장애어린이의 자기선택권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등 참신한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직업 지원
13,460명

지역 연계
18,987명

치료 지원
26,765명

가족 지원
118,652명

교육 지원
28,287명



개관 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인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 사회적응, 문화여가 등 241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개관 5주년을 맞아 장애인과 전 직원이 만드는 행사, 지역상점이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이 참여하는 무장애마을 조성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직업 지원
27,158명

지역 연계
13,7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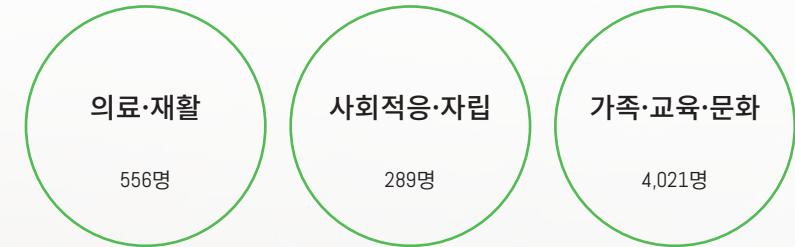
치료 지원
11,381명

가족 지원
9,617명

교육 지원
8,012명

배분사업

기업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재활, 사회적응·자립, 가족·교육·문화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함께하는 기업이 늘어 장애어린이 부모와 비장애형제·자매, 성인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실시했습니다.



지원

봉사

4,866명

374명

후원기업

현대모비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효성, 하나금융나눔재단, 카카오, 코비에셋, KB국민은행, 이베이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보령중보재단, 우리은행, 예감, 도모컴퍼니

푸르메재단 배분사업에 함께한 성준이와 어머니 정현숙 씨



다리 수술로 바른 걸음을 찾은 혜진

의료·재활

장애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재활치료비와 의료비를, 성인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치료비와 이동진료를 지원했습니다.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 몇 걸음 못가 넘어지기 일쑤였던 혜진이(15)는 다리 수술로 바른 걸음을 찾았습니다. 심한 충치로 치아 뿌리만 남아있던 승민(40) 씨는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치료로 매끼 식사가 편해졌습니다.

재활치료비

231명

의료비

22명

치과치료비·이동진료

303명

인터뷰

김소정 어린이, 김미진 어머니

희망의 공을 굴리다

“보치아는 딸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예요. 운동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김미진(48) 씨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 소정(14)과 매주 체육관으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잘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해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소정. 보치아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글·사진

김금주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세상과의 연결고리 ‘보치아’

늦은 오후 특수학교 체육관, 소정이가 친구들과 보치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적색 공을 굴려 흰색 공 가까이 위치시키는 사람이 점수를 얻는 중증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없는 소정이는 머리를 이용합니다. 목표지점을 확인하던 소정이가 엄마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정이의 신호에 엄마는 기구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 위에 공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소정이가 헤드셋 끝으로 공을 톡 밀어냅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소정. 공이 흰색 공 가까이 멈춰선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미소를 띠입니다. 다음은 친구 차례. 승패를 겨뤄야 하는 경쟁자지만 소정은 진심으로 응원해줍니다. 엄마는 그런 소정이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소정이가 운동을 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알아가더라고요. 보치아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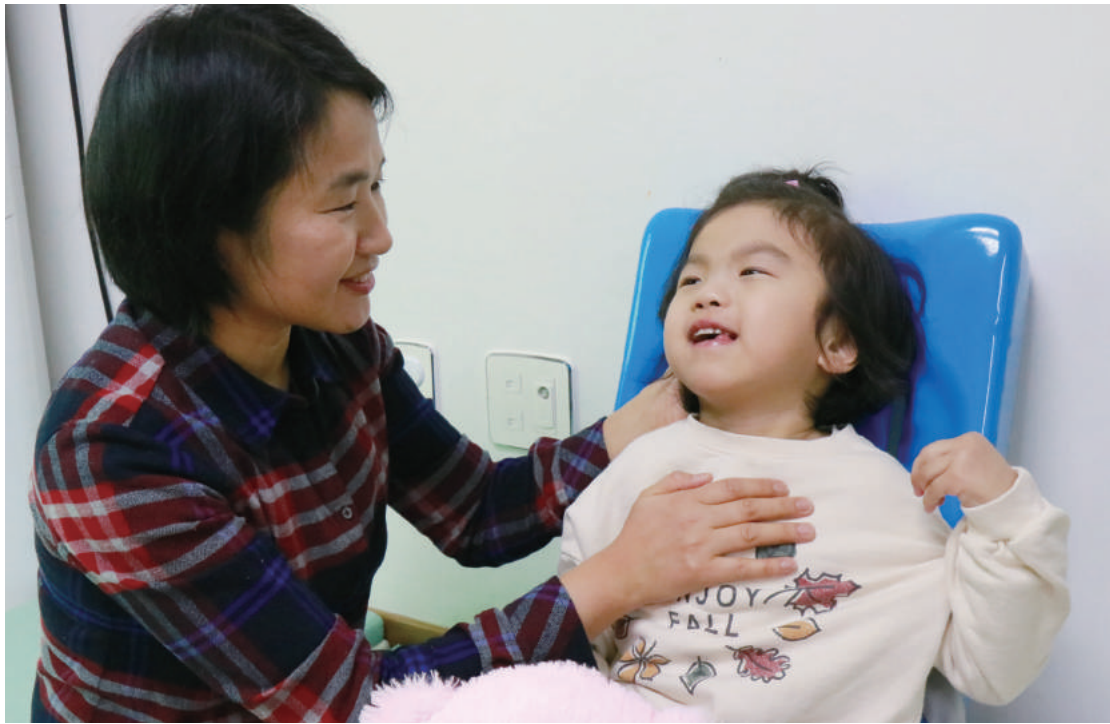
꾸준한 재활치료의 필요성

소정이는 요즘 부쩍 보치아에 흥미를 보입니다. 1주일에 2번, 4시간 이상 이어지는 연습 경기도 곧잘 소화합니다.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엄마는 재활치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언어치료의 도움이 컸습니다. “보치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요. 소정이는 그렇지 못해 답답했죠. 그런데 꾸준히 치료를 받았더니 말을

알아듣기 시작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운동을 재미있어 해요.” 하지만 소정이의 언어치료를 담당했던 푸르메재활센터 강영미 치료사는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소정이가 일상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고, 고개의 움직임을 통해 ‘네’, ‘아니오’ 대답도 잘 하지만 비유 문장이나 대조적인 낱말은 어려워해요. 계속 치료를 하면서 말 이외의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눔은 곧 희망

엄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언어치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효성그룹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한테 나눔은 곧 희망이에요. 지원이 없으면 꿈도 접어야 하니까요.” 소정이의 꿈은 보치아 국가대표. 재활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엄마도 소정이의 꿈을 지지합니다. “소정이가 좋다면 저도 좋아요. 소정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열심히 도울 거예요. (웃음)” 나눔이 있어 꿈을 품을 수 있다는 엄마는 옆에 있는 소정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소정이가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운동할 때 친구들 응원해주는 것처럼, 소정이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길 바라.”



자세유지기기 지원으로 생활이 한결 편해진 아라

사회적응·자립

보조기구
206명
정형신발
83명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이동보조기기와 자세유지기기, 정형신발을 지원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던 아라(6)는 자세유지용 의자 덕분에 편안하게 앉아 엄마와 눈을 맞춥니다. 발목이 틀어져 5분 이상 걷지 못하던 선우(15)는 자신만을 위해 제작된 특별한 신발을 신고서부터 나들이가 즐거워졌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이동보조기기와 자세유지기기, 정형신발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미술공부를 시작한 솔비

가족·교육·문화

비장애형제·자매 심리치료비·교육비
40명

부모 상담·심리치료비
15명

가족여행
187명

객석나눔
625명

희망보따리
154명

장애인식개선도서
3,000명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심리치료, 교육, 가족여행,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희망보따리를 선물했습니다. 딸 은진이(17)의 장애 진단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김성희 씨(48)는 전문가 상담 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누나 솔비(16)의 치료비 부담으로 학원을 포기해야 했던 솔찬이(15)는 미술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가족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도서 <똥 싸기 힘든 날>을 제작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했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 처음 듣는 파도소리

하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 여덟 살 다연이.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앞을 볼 수도,
걸을 수도 없어 외출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선 자주 세상구경을 시켜주고 싶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늦은 밤…….
엄마는 다연이의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그 사이 다연이의 두 오빠는 외로움에 익숙해져갑니다.

모두가 지쳐가던 지난해 여름,
SPC와 푸르메재단의 지원으로
아이들과 3박 4일 제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직원 분들 덕분에
온전히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 처음 듣는 파도소리.
다연이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연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연이를 보며 다연이 오빠들도 즐거워했습니다.
저 역시 행복했던 제주에서의 추억들을 꺼내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사회통합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즐거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활과 여가를 위한 체육활동, 책읽기와 체험이 어우러진 독서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포푸르메
어린이도서관

39,060명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62,317명

이용

101,377명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용자들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그림책 콘서트

마포푸르메 어린이도서관

마포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구립도서관이자 재활병원 환아와 그 가족을 위한 병원도서관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비하고,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장애인이 책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도서 열람·대출

33,665명

문화 프로그램

5,395명

인터뷰

황혜진 마포구 주민

베폰 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 병원은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리고 황혜진(37) 씨와 같은 기부자에게도 이미 일상을 함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글·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어린이재활병원이 자랑스러운 주민들

강서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황혜진 씨는 7년 전, 9단지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당시엔 병원이 빈 공터였습니다. “장애어린이 병원인 줄은 몰랐다가 관심이 갔죠. 나중에 아이가 아플 때 가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첫 삽을 뜨고 건물이 한 층 두 층 올라가는 과정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병원이 지어질 때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빚발쳤습니다. 황혜진 씨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장애어린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일부 반대 의견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이 생기자 동네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반대했던 주민들이 오히려 병원을 더 잘 이용해요. 집 옆에 도서관, 수영장, 소아과가 생기니까 좋다고들 해요.” 병원이 주민들에게 사랑방이 되고 있다며 뿌듯합니다.

장애아이도 내 아이처럼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제 아이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제 아이가 소중한 만큼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다가왔죠.” 2015년, 푸르메재단에 정기기부를 신청한 황혜진 씨에게 찾아온 변화는 주변을 살피는 일. 우리 아이 다칠까봐 전전긍긍했다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애정이

많습니다. 기부자 초청행사 때는 장애어린이들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또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둘러보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자벽에 새겨진 황혜진 씨 이름을 보고 아들과 남편은 엄지를 추켜올렸습니다.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 보람찼어요. 첫째랑 뱃속의 둘째 아이가 기부를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봉사할 기회를 꿈꾸다

7살 아들 두민이 방 창밖으로 병원 간판이 보입니다. “알록달록 반짝이는 간판이 예쁘대요. 같이 야경을 감상하면서 병원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병원은 두민이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엄마·아빠 손잡고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전시회도 구경하고, 아플 때 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습니다. 황혜진 씨는 기회가 된다면 병동 아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을 보태고 싶습니다.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육아를 하면 한두 시간의 여유가 절실해요. 장애어린이 엄마들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하고 싶어요.” 황혜진 씨에게 나눔은 ‘부메랑’입니다. “기쁜 일은 같이 공유하면 배가 되듯, 물질이나 재능을 나누면 그 이상의 기쁨으로 돌아와요. 제가 베폰 만큼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집 앞, 병원을 누구보다 아끼는 동네 주민의 존재만으로 든든합니다.



관절 기능 회복과 재활을 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 줌바댄스·아쿠아로빅 등 체육 프로그램, 탁구·배드민턴·요가 등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42,845명

체육 프로그램

9,289명

여가 프로그램

10,183명

출판사업

전 세계의 우수한 장애인 일터를 소개한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곳>,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의 부모를 위한 지침서 <발달단계별, 특성별로 접근한 자폐부모 교육>, 자폐어린이 치료와 양육 방법을 담은 만화 <검정고무신 기영이의 자폐친구 사귀기>, 누구나 겪는 생리현상을 소재로 장애를 풀어낸 동화 <똥 싸기 좋은 날>을 출간했습니다. 푸르메재단과 손잡고 장애인식개선도서를 출간한 부키출판사, 뜨인돌출판사, 양철북출판사, 마음이음출판사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출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주었습니다.

출간

4회

기부

5,174,878원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곳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곳

세계 선진 장애인 재활시설 탐방기
백경학 · 고재춘 · 채준호 외 지음

사회평론

글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사진 푸르메재단 DB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곳

먹고 자고 씻는 일부터 학교에 다니고 직업을 갖는 일. 비장애인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아플 때 치료를 받고 일해서 돈을 벌며 살아가는 ‘보통의 삶’을 누릴 순 없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푸르메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의 우수한 장애인 재활시설 30곳을 둘러보고 기록해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묶었습니다. 외국의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재활병원을 통해 한국 재활시설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서 찾은 보통의 삶

독일 카리타스 다하우 작업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일합니다. 장애인이 조립, 포장, 목공, 전기 등 분야별로 생산을 담당하고 마이스터가 교육 훈련과 기술 전수를 맡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 수익의 70%가 대기업에서 발주할 정도로 체계적인 직업 교육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조성된 일본 다카야마시 무장애마을은 시가 2005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높낮이차를 조정하고 화장실을 장애인뿐



1

지적·정신장애인이 제품 생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일 카리타스 다하우 작업장

2

휠체어 진입이 편리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높낮이를 낮춘 일본 다카야마시 무장애마을

3

임원 환아를 위해 동물매개치료를 진행하는 미국 벨리 어린이병원

4

미국 장애인 작업장 에이블 인터스트리스에서 일하는 장애인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쓸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정비하기까지. 외부인으로 구성된 모니터투어를 통해 수시로 불편사항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부로 건립돼 기부로 운영되는 미국 벨리 어린이병원은 외래재활센터, 입원병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모든 공간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도서관, 장애로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동물매개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환자 보호자를 위한 무료가족호텔이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다

한국의 장애인은 250만 명, 중증장애인의 수는 8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기본적인 활동을 지원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재활시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어린이가 제때 잘 치료받는 것을 넘어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이 살아갈 토대를 갖춘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적극 협력해 장애인을 사회로 이끄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말해줍니다. 장애인이 개개인에 맞는 재활치료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 장애인과 그 가족, 정부·복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관심의 폭을 넓혀 장애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그려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PART

4

꿈꾸다

인터뷰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정리 정태영 기획실장
사진 김금주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푸르메재단 DB

“장애청년의
자립을 돕는
푸르메마을 사업으로
제2의 도약을
꿈꿉니다”



우리 병원이 올해 건립 3년차를 맞이합니다. 전반적인 조직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시민 1만 명의 나눔과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적처럼 문을 열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감개무량합니다. 병원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인 운영의 틀을 갖추는 과정도 무척 어려웠는데, 그동안 열정을 바쳐 노력해온 재단과 병원의 임직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직원 140여 명이 하루 300명의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800건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4시간 입원병동 40명, 6시간 낮병동 65명의 아이들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 재활병원이다보니 어린이의 35%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에서 1년 반씩 치료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어릴 때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재활의 효과가 큰데, 대기하느라 지쳐가는 부모님의 심정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병원은 당초 예상했던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은 장애어

린이가 연인원 약 1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5.7%에 이릅니다. 우리 병원은 약 2,500명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치료비 약 5억5천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어린이들은 우리 병원이 아니면 치료받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병원의 존재 의미가 한층 빛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치료가 절실한 장애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병원을 모델로 전국 각지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병원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 재활병원으로서 정부와 시민사회, 장애인, 기부자 등 여러 주체가 주목하는 국가적 모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7년 2월에 우리 병원을 찾아 세가지 말씀을 남겼습니다.

먼저, 우리 병원이 시민 1만 명의 기부로 지어진 것은 하나의 기적이자 한국사회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 꼬마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기부자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준비하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재활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에도 어린이재활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전국에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병원은 적자가 30억 원을 넘고 앞으로도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고 “임기 내에 방도를 찾겠다”면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시민들의 기부금만으로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치료의 보험수가가 너무 낮은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아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거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장애어린이가 재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푸르메마을 건립사업에 힘쓰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푸르메재단이 설립된 취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애어린이를 잘 치료해서 우리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과 푸르메재활센터를 시민의 힘으로 세우고 국가적인 본보기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천시와 종로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지역사회 복지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온 중요한 기관이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강점인 재활의료 역량을 결합시킨다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답게 자립해서堂堂하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잘 받고 청년으로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마땅한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평생 돌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그분들

의 말이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청년이 자립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큰 사업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칭 푸르메마을을 세우려고 합니다. 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와 힐링이 결합된 일자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에서 각종 생산시설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부지를 마련하려고 자치단체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1차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팜은 첨단 IT기술과 작물 재배를 결합시킨 차세대 농업모델입니다. 높은 생산성과 관리의 용이성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고, 대규모 스마트팜을 지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건립 중인 자립형 스마트팜 공동체마을이 눈에 띄어볼 만합니다. 현재 스마트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재배기법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여러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중소규모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구체화시키고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 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실 장애청년의 일자리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땅한 전례를 발견하긴 어렵지만, 푸르메재단은 늘 그래왔듯이 우직하게 길을 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여기에 2차 가공사업과 3차 서비스사업까지 결합시킨 푸르메마을 건립을 2020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일자리 사업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푸르메재단이 그동안 SPC그룹과 손잡고 행복한베이커리&카페 6개점을 만들고 운영해왔는데요. 커피 판매가 중심인 기존 매장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제빵기능까지 갖춘 정식매장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매장 1개당 장애청년 일자리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매장을 향후 10년간 매년 한두 곳씩 새로 내는 방식입니다.

푸르메재단이 수많은 기부자의 나눔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푸르메재단은 2005년 설립 이후로 발전을 거듭해왔습

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재활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효과적인 캠페인도 큰 몫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준 기부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기부자 명단을 볼 때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 몽클해집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꾸준히 기부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야말로 푸르메재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기부단체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기부자들은 사회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 이슈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부자의 높은 신뢰를 등에 업은 만큼 더 열심히, 더 투명하게, 더 고민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외형적으로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소통과 교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부자들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푸르메 구성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책상 두 개로 시작한 푸르메재단이 불과 10여년 만에 산하기관 10개를 아우르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470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사회에서 NGO가 이토록 급격한 성장을 이룬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성취를 내놓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을 단단히 다지지 못한다면,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사상누각처럼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장했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자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시스템이 견고한지가 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성찰과 각성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부문 역시 우리사회의 각종 현안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책을 읽을 때나 여행을 다닐 때도 연구하고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직이 커지고 관료화할수록 도전적인 자세, ‘한번 해보자’하는 열정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밝은 눈으로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자기 업무와 조직 운영에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서 우리만의 길,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갑시다. *



네덜란드에서 건립 중인 자립형 스마트팜 공동체마을 ©EFFEKT Architects



푸르메재단 명예이사장

김성수

시민 기부로 건립한 어린이재활병원이
국가적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푸르메재단은 이제 새로운 꿈을 준비합니다.

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산·문화·치유 기능이 결합된
일자리 공동체인 푸르메마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기부자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푸르메의 길을 걷겠습니다.

푸르메재단과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2017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8년 3월 23일
발행처 푸르메재단
발행인 강지원
디자인 V/A www.vadesign.co.kr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3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www.purme.org
02-720-7002

facebook.com/purmefoundation
twitter.com/purmefoundation
happylog.naver.com/purme.do
pf.kakao.com/_xeHVxil

